



배포일자 : 2026년 8월 14일(금)

숙박업 플랫폼 - 숙박업 중앙회, ‘숙박업 동반성장 실무협의체’ 첫 회의 개최

오세희 위원장 “숙박업 동반성장 실무협의체에서 업계 상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 성과를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숙박업
동반성장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체 회의에는 대한숙박업중앙회와 국내 대표 숙박예약 플랫폼 놀유니버
스(야놀자), 여기어때가 참여했고, 업계 현안 해결 및 동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
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세희 위원장은 최근 3개월 이상 놀유니버스, 여기어때, 숙박업중앙회와 개별
및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며, ‘수수료 문제, 광고상품 문제, 광고/쿠폰 결합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과정에서 광고 상품과 쿠폰 발행이 연계되는
문제가 해소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숙박업소 적용이 늦어진 점이 발견되기도 했
다. 또한, 플랫폼 회사들이 지난 2년간 이어진 기존 상생안에 대한 연장 및 확대
에 대해서 입장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도 확인했다.

이에 이해당사자가 모두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실무협의체 필요성에 모두 공감
하였고 오늘 첫 회의가 열렸다. 실무협의체는 향후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
생 협의, 이행 점검, 현장 의견 반영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번 “숙박업 동반성장 실무협의체” 첫 회의에는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

놀이유니버스 박성식 대외전략대표, 여기어때 허승우 총괄전무,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고장수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숙박업계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 모두가 숙박업계를 함께 동반성장시켜야 하는 당사자라는 생각으로 협의체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식 대외전략대표는 "숙박업계와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노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실무협의체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승우 총괄전무는 "숙박업계와 플랫폼이 각자의 입장을 넘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협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오세희 위원장은 "숙박업계와 상생을 해야만 플랫폼사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있으니, 이제 실질적인 상생안을 마련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자"라며,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을 다짐했다.

<끝>